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on Codependency. -Focusing on Double ABCX Model-

Sunyoung Ju\*, Seongkwan Yang\*\*, Hwieseo Park\*\*\*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on Codependency of college students from Double ABCX model.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relationship between boundary ambiguity, internal working model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then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World view orientation.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s of codependency with gender, economic level in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howed that codependency was related to economic level of college students. But it has not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gender. Seco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World view orientation was not significant. Third, mediating effects of Codependency on Boundary ambiguity, Internal working model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were significant. This study suggested som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basing on this analytical results.

▶ Keyword: Codependency, Double ABCX model, Boundary Ambiguity, Internal Working, Psychological adjustment

### I . Introduction

최근 공동체 의식에 붕괴되면서 위기의 가정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가정의 위기문제는 여러 가지로 유형화시켜볼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심리적인 문제는 드러나 보이지 않으면서도 가정과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족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하는가? 그리고 불안정한 대처로 인해 이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신체적 문제들은 무엇인가? 또한 이들이 부적응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전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등은 이 연구의 주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동반의존은 매우 잔인하고 강력한 형태의 지연된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자신의 가정과 부모에게서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일부를 부인하기까지 하는 것이다[1]. 동반의존은 자신의 자존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역기능적 장애로서 일방적인 대인관계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무책임하고 중독성이 있는 사람이 미숙한 행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와도 관련되어있다. 동반의존의 개념이 처음에는 알코올중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범위가 확장되어 오랫동안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보이는 역기능적 특성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자신의 욕구를 맞추어야 하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어떠한 유형도 동반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2].

동반의존 현상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반적인 사

---

\* First Author: Sunyoung Ju, Corresponding Author: Hwieseo Park  
\*Sunyoung Ju (sunnyju3@hanmail.net)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s, Chosun University  
\*\*Seongkwan Yang (skyang5137@hanmail.net). Dept. of Childcare Welfare, Dongkang University.  
\*\*\*Hwieseo Park (hspark@chosun.ac.kr)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 Received: 2017. 10. 16, Revised: 2017. 10. 21, Accepted: 2017. 11. 06.

람들에게서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가정내 폭력, 부모의 중독 또는 만성적인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는 부모, 어머니의 강박이 있는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거나, 가족원의 부재 또는 장애의 문제가 있는 가족에게서 자랐다면 동반의존의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동반의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특히 동반의존의 문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로 스트레스 이론의 관점에서 동반의존이 발생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개인과 가족의 스트레스 모형을 이론화하여 체계화한 모델로는 몇 가지 것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그중에서도 McCubbin과 Patterson의 Double ABCX 모델은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가족배경 속에서 발생한다고 제시된 동반의존을 이들 위기가족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Double ABCX 모델의 관점에서 동반의존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역기능 가족들에게서 나타나는 동반의존 현상은 하나의 대처방식으로 나타나 이들 개인이나 가족이 부적응 현상을 매개할 것으로 보이고, 이들 인과관계에서 이들 인과관계를 조정하는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Double ABCX 모델의 관점에서 동반의존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인과모형을 작성하여 검증해 봄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 II. Theoretical Background

### 1. Double ABCX Theory

스트레스와 위기에 대한 가족 단위 반응에 관한 연구로, Reuben Hill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는 전쟁으로 인해 흩어진 가족들이 재결합해서 살게 된 가족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소위 ABCX모델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요인 A는 ‘위기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스트레스 요인’이며, B는 ‘위기에 대한 해결자원’이고, 요인 C는 ‘사건의 주관적 정의’를 나타낸다[3]. McCubbin과 Patterson은 Hill(1949)의 ABCX 모형을 Double ABCX 모델로 확장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의 반응이 변한다는 것을 제시했다[4]. McCubbin, Olson & Patterson(1983)은 전쟁을 겪은 가족 연구를 통해 ABCX모델을 위기 이전과 위기를 설명뿐만 아니라 위기이후 개인과 가족의 탄력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림 1>에서 위기이후의 요소는 aA, bB 및 cC이며, 이것은 각각 누적된 스트레스터미(aA), 가족 및 새로운 자원(bB) 그리고 위기와 누적된 스트레스터미, 가족 및 새로운 자원에 대한 지각(cC)을 의미한다.

McCubbin과 동료들은 전쟁에서 아버지나 남편을 잃어버린 가족은 점차 상실이후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버

지나 남편의 상실로 인해 아내가 겪었던 스트레스와 역할의 모호함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며, 이들의 문제는 역할변화, 경제보호성, 의사결정과정, 일상생활 사건 및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된 문제들이었다[4]. Fig.1에서 요인 bB, 또는 가족 적응력이 있는 자원으로, 이것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처자원 및 대처전략을 사용한다. 즉, 가족성실성 유지, 자기개발을 통한 독립성 확립, 감정의 해결과 표현하기, 사회지원, 사회적자원(법률 및 프로그램혜택 등) 및 가족의 ‘사회적 행동’이 그것이다. 기능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은 위기를 야기한 사건으로부터 의미(요인 cC)를 얻으려고 시도하며, 어려움을 재정의하기도 한다. 종종 영적신념이 작용하는데, 이와 같은 의미형성과정은 나머지 가족구성원들이 상실에 대한 슬픔을 다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4]. McCubbin and Patterson은 cC가 긍정적이면 개인과 가족이 더 적응적이 되고, 반면 어떤 요인의 불균형은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Double ABCX 모델은 만성화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계보호성과 내부작동모델로 인한 개인의 동반의존 발생 및 심리부적응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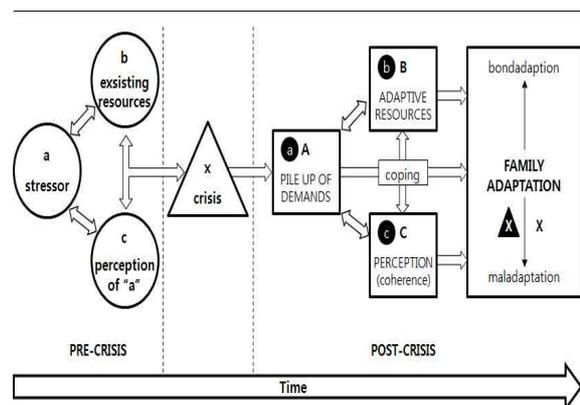


Fig. 1.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

### 2. Codependency

동반의존(codependency)은 스트레스가 많은 가족배경 때문에 야기되었으며, 관계에 대해 극단적인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정의되었다[5]. 많은 연구자들은 동반의존성이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는 관계형태를 포함하며 다른 사람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며 몰두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6]. J. L. Fischer 등(1991)은 중독자와 같은 만성적인 가족 스트레스를 지닌 학생들은 동반의존 척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5] 따라서 동반의존은 스트레스가 많은 가족 배경으로 인해 야기되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몰두와 의존적인 역기능의 관계를 맺는 행동특성이라고 개념화 할 수 있다.

동반의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낮고 타인중심의 삶을 살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아

니오'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문제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느끼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책임을 돌리는 경계의 모호함이 나타난다. 이들은 거부되거나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혼자 있을 때 우울하고 외롭다고 느끼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과의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관계가 고통스럽거나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관계를 끝내지 못하며 사랑의 관계와 친밀한 관계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부정한다.

### 3. Boundary Ambiguity

경계모호성은 전쟁에서 아버지 또는 남편을 잃거나 실종된 경우, 아버지와 남편의 물리적인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심리적 모호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계의 모호성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겪기도 하고 재혼가정과 같은 복합가족 구성원들에게서 나타나며, 치매와 같은 문제로 기능이 약화된 가족구성원으로 인해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도 나타난다. Boss(1990)는 경계의 모호성을 스트레스로 인한 모호한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하였고, 지속된 스트레스의 증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7]. Boss(1986)는 또한 가족체계 내에서 경계의 모호성의 영향을 제시했는데, 기능에 미달하는 가족원으로 인해 다른 가족원들이 과기능하여 높은 경계모호성을 가진다는 것을 지적했다. 경계문제와 동반의존간의 연결관계는 원가족의 매개적인 영향과 성인애착의 특징인 불안정 내부작동모델의 내재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경계모호성은 내부작동모델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이 내부작동모델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더 심화된 동반의존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동반의존은 가족경계의 모호한 불안정성에 대한 반응으로 내재화된 내부작동모델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Boss, Pearce-McCall과 Greenbergh(1990)의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계모호성의 높은 수준을 경험한 사람은 삶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고하였다[8]. 이들의 부정적 인식은 기능적인 면과 자신의 경험적 세계관에 또한 영향을 미친다. 삶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은 그 영향으로 무력감을 나타내는데, 이들 운명론적인 세계관은 아동기애착과 성인애착에서 볼 수 있는 불안정한 내부작동모델의 내재화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 4. Internal Working Model

Bowlby(1973)에 의하면 유아는 주양육자와 반복된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한 타인에게 갖는 정서적 유대인 애착을 하며, 이 애착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부작동모델을 형성한다고 하였다[9]. 내부작동모델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지도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의 자신과 타인,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에 비교적 일관된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즉, 자신이 겪게되는 현재와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 반응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인지적인 틀의 역할을 하며, 과거의 경험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기능을 한다. 안정된 애착을 한 아동의 내부작동모델의 형태는 타인에 대해 반응을 잘하고 애정이 깊으며 신뢰할만한 보호자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들은 타인과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불안정한 애착을 한 아동은 세상을 위험한 장소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매우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자기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Kobasa, Maddi와 kann(1982)은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회피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동반의존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10]. 불안정내부작동모델은 경계의 모호성이 높을 때 나타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거부반응이 예상될때나, 부모와 같이 중요한 사람의 행동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예측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 또한 불신의 관계와 높은 불안 및 독립심의 부족과도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11]. 동반의존은 내부작동모델과 경계모호성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나타났을 수 있다. Fisher 등(1992)은 아이들이 원가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결과로 동반의존하는 것을 발견했다[12]. 스트레스와 모호한 경계를 가진 역기능적 가족안에서 가족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정작업모델에 대한 대처와 적응의 수단으로 동반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5. Adaptive Resources

본 연구의 스트레스 모델에 대한 적응자원의 첫 번째로, 자존감을 들 수 있다. 자존감 (self-esteem)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소중하고 가치있는 존재이며, 어떤 성과를 이루어 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13]. 자존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라기 보다는 주관적인 느낌일수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생의 유능성'을 확신하게 된다. 자존감의 문제는 역기능적 가정과 그러한 가정속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삼을 수 있다[14]. 또한 자존감은 동반의존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 Beattie(1987)는 "동반의존자의 구원하는 행위의 중심에는 낮은 자존감이라는 악마가 살고 있다"고 하였는데[15], 개인의 자존감 수준이 동반의존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자원으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받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요소로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이다. 사회적 지원의 근본적 체제는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의 지원체계가 있고, 자원봉사집단 등의 의도적으로 형성된 지원체제 및 전문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가 등의 사회제도화 된 지원체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지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정적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다. 동반의존자가 사회적 지지로써 가족들과의 지속적인 친목모임에 참여할 때 큰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16]를 통해 사회적 지지는 동반의존

성을 완화하는 영향요인이 제시되었다 .

### 6. Perception(coherence): World View Orientation

세계관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지칭하는 말로 세계와 자신에 대한 ‘해석’의 특별한 관점이며, 그 해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Ansbacher와 Ansbacher(1956)는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사고와 감정 및 행위의 모든 표현을 일관된 통합체인 세계관을 통해 표현한다고 하였다[17]. 즉, 개인의 가치, 신념, 태도, 목표, 관심 및 개인의 현실적 지각 등이 세계관을 통해서 표현되므로, 그 사람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그 사람의 행동이 적응적인지 부적응적인지의 설명 또한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의 삶의 방향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Boss(1987)는 동반의존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타인에게 극단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타인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얻으려하는 특성이 외적통제소재를 반영하는 세계관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7]. 외적통제소재 성향의 사람은 운이나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행동이나 강화를 결정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운이나 다른 사람이 자기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을 외부의 요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Lyness(1991)는 위험을 회피하는 외적통제소재의 특성이 동반의존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18]. 외적통제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 대인관계 변화를 위한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반의존 수준은 외적통제소재와 같은 세계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기로 인한 누적된 스트레스와 대처자원들에 대한 인식에 세계관 성향을 적용하여 동반의존에 대한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7. Maladaptation

Fischer 등(1991)에 따르면, 동반의존이 불안 및 우울증에 정적관련성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신체화하여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질환을 나타낸다고 하였다[5]. 또한 동반의존 수준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우울, 불안, 강박, 낮은 자존감, 신체화 등의 정서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 따라서 개인의 심리부적응은 스트레스와 관련한 동반의존에 의해 신체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Mendenhall(1989)은 동반의존자들은 자신들의 욕구가 항상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지나치게 생각이나 느낌에 집착하여 지속적인 정서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하였다.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공포증과 범불안 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을 자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19]. 본 연구에서는 심리부적응이 경계모호성과 내부작동모델로 인해 나타난 동반의존의 결과로 제시되었다. 또한 경계모호성과 내부작동모델의 직접적인 결과로도 제시되었다.

## III. Research Design

### 1.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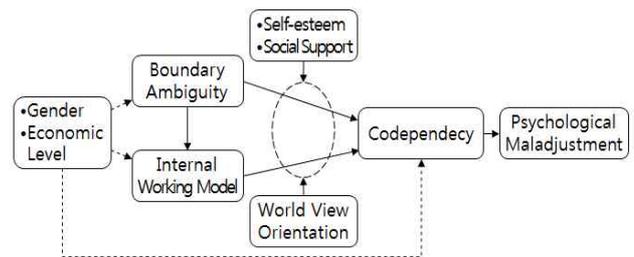


Fig. 2. Research Framework

- <가설 1> 성별, 경제수준, 경계모호성 및 내부작동모델은 동반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경계모호성과 내부작동모델이 동반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자존감, 사회적지지, 세계관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경계모호성과 내부작동모델은 동반의존을 통하여 심리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Measuring the Variables

첫째, 동반의존은 Spann-Fisher & Croford(1991)가 개발한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Spann-Fischer 척도를 사용하였다. 타인초점과 관계의 문제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14로 나타났다.

둘째, 경계의 모호성은 Boss, Greenberg, and Pearce-McCall(1990)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와 아버지, 최근 중요한 사람을 잃었을 경우 및 현재의 관계에서의 경계모호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문항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10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부작동모델은 애착양식을 측정하여 내부작동모델을 평가하는 Hazan과 Shaver(198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Hazan과 Shaver(1987)는 애착 양식을 안정, 회피, 불안, 양가적 양식으로 나눠서 측정했다. 이 연구에서 전체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843이었다.

넷째, 자존감 척도는 Rosenberg(1965)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745이었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의 측정은 Fischer와 Crawford(1992)의 4개 항목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음과 같은 항목 : “내가 필요로 할 때,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 신경을 써줄 사람들이 있다”를 포함한다. 6점 척도이며, 전체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642이었다.

여섯째, 세계관성향은 보강된 통제소재의 축약버전(Spann

1989)을 사용하였다. 14항목으로 통계의 내부소재와 외부소재를 반영하는 쌍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일곱째, 심리부적응은 대인민감성, 우울증, 불안, 대인관계의 문제, 불안과 신체화 증상을 측정하는 간이증상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전체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943이었다.

### 3.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G 광역자치단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활용이 부적합한 설문지 56부를 제외한 총 264부를 최종표본으로 활용하였다.

## IV. Analytical Results

### 1.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sample on Boundary Ambiguity, Internal working Model and Codependency

성별, 경제수준, 경계모호성 및 내부작동모델은 동반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Table 1. The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n Codependency

independent variables	1		2	
	$\beta$	t(sig.)	$\beta$	t(sig.)
(Coefficient)		10.904 (.000***)		8.987 (.000***)
Boundary Ambiguity (mother)	.199	3.138 (.002***)	.196	3.096 (.002**)
Boundary Ambiguity (father)	.050	.819 (.414)	.056	.902 (.368)
Boundary Ambiguity Recently lost relationship	.149	2.377 (.018*)	.145	2.342 (.020**)
Boundary Ambiguity (Current relationship)	.011	.167 (.867)	-.011	-.162 (.872)
Internal working Model	-.123	-1.936 (.050*)	-.142	-2.261 (.025**)
Gender			.011	.193 (.847)
Economic level (Very high)			-.195	-3.245 (.001**)
Economic level (a bit high)			.033	.467 (.641)
Economic level (normal)			.010	.139 (.890)
Economic level (the lowest)			.181	2.876 (.004**)
	R2=.115, $\Delta$ R2=.115 F=6.689, $\Delta$ F=.000		R2=.205, $\Delta$ R2=.090 F=3..506, $\Delta$ F=.013	

\*p<.05, \*\*p<0.01, \*\*\*p<0.001

1단계에 경계모호성과 내부작동모델을 투입한 후 2단계에 인구통계학요인들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와의 경계모호성과 최근잃어버린관계에서의 경계모호성 그리고 내부작동모

델이 동반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성별, 경제수준의 인구통계적 요인이 회귀분석에 투입된 후, 경계모호성과 내부작동모델의 t값과 유의미성 수준의 변화가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경계모호성, 최근잃어버린경우에서의 경계모호성, 내부작동모델이 여전히 동반의존에 유의미하였으며 특히, 내부작동모델의 t값의 높아졌고 유의미 수준도 높아졌다. 어머니와의 경계모호성과 최근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린경우는 t값과 유의미수준이 약간 낮아졌으나 여전히 유의미성을 유지하였다. 2단계 유의확률 변화량 F 또한 .01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경제수준이 아주 높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반의존과 부적 관련성이 나타났고, 아주 낮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반의존과의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동반의존에 대한 성별차이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동반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부분채택 되었다.

### 2. The effects of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World view orientation on Boundary Ambiguity and Internal working Model

자존감, 사회적지지, 세계관성향을 경계모호성과 내부작동모델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2>).

Table 2. The effects of Gender,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World view orientation.

independent variables	1		2	
	$\beta$	t(sig.)	$\beta$	t(sig.)
Coefficient		10.904 (.000***)		6.343 (.000***)
Boundary Ambiguity (mother)	.199	3.138 (.002***)	.211	3.374 (.001**)
Boundary Ambiguity (father)	.050	.819 (.414)	.061	1.005 (.316)
Boundary Ambiguity Recently lost relationship	.149	2.377 (.018*)	.122	1.961 (.050*)
Boundary Ambiguity (Current relationship)	.011	.167 (.867)	-.008	-.118 (.907)
Internal working Model	-.123	-1.936 (.050*)	-.059	-.904 (.367)
Self-Esteem			.116	1.964 (.050*)
Social support			-.083	-1.238 (.217)
World view orientation			.172	2.890 (.004**)
	R2=.115, $\Delta$ R2=.115 F=6.689, $\Delta$ F=.000		R2=.162, $\Delta$ R2=.047 F=5..456, $\Delta$ F=.007	

\*p<.05, \*\*p<0.01, \*\*\*p<0.001

1단계에 경계모호성과 내부작동모델을 투입하였을 때 어머니의 경계모호성과 최근 잃어버린 관계에서의 경계모호성 그리고 내부작동모델이 동반의존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2 단계에 자존감, 사회적지지, 세계관성향을 투입하였때 어머니

의 경계모호성의 유의수준은 높아졌고, 현재 맺고 있는 관계의 경계모호성 유의수준은 낮아졌다. 또한 내부작동모델의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2단계 유의확률변화량 또한 F가 .00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자존감, 사회적지지, 세계관성향은 경계모호성과 내부작동모델에 영향을 미치고 내부작동모델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 3.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World view orientation.

경계모호성과 내부작동모델이 동반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자존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R<sup>2</sup>는 모형1에서 11.5%, 모형2에서는 12.2%, 모형3에서는 13.4%로 나타나 점점 더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3단계의 유의확률변화량 F가 .168로 나타나 경계모호성, 내부작동모델과 동반의존의 관계에 있어서 자존감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independent variables	1		2		3	
	β	t( sig. )	β	t(sig.)	β	t(sig.)
Coefficient		10.904 (.000***)		8.456 (.000***)		10.842 (.000***)
Boundary A. (mother)	.199	3.138 (.002***)	.196	3.094 (.002**)	.196	3.085 (.002**)
Boundary A. (father)	.050	.819 (.414)	.055	.895 (.371)	.034	.551 (.582)
Boundary A. (Recently lost relationship)	.149	2.377 (.018*)	.142	2.262 (.025*)	.143	2.287 (.023*)
Boundary A. (Current relationship)	.011	.167 (.867)	.017	.254	.020	.293 (.770)
Internal w. Model	-.123	-1.936 (.050*)	-.114	-1.792 (.800)	-.109	-1.708 (.089)
Self-esteem			.084	1.415 (.158)	.056	.903 (.368)
Boundary A. *Self-esteem					-.104	-1.708 (.089)
Internal W.M. *Self-esteem					.034	.540 (.589)
	R2=.115, F=6.689, S=.000		R2=.122, F=5.930, S=.158		R2=.134, F=4.924, S=.168	

\*p<.05, \*\*p<0.01, \*\*\*p<0.001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표 4〉). R<sup>2</sup>는 모형1에서 11.5%, 모형2에서는 12.0%, 모형3에서는 9.6%로 나타나 약간의 증가가 있다가 다시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3단계의 유의확률변화량 F가 .655로 나타나 경계모호성, 내부작동모델과 동반의존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dependent variables	1		2		3	
	β	t(sig.)	β	t(sig.)	β	t(sig.)
Coefficient		10.904 (.000***)		10.329 (.000***)		10.632 (.000***)
Boundary A. (mother)	.199	3.138 (.002***)	.200	3.149 (.002**)	.208	3.210 (.001**)
Boundary A. (father)	.050	.819 (.414)	.053	.865 (.398)	.057	.917 (.360)
Boundary A. (Recently lost relationship)	.149	2.377 (.018*)	.141	2.237 (.026*)	.145	2.295 (.023*)
Boundary A. (Current relationship)	.011	.167 (.867)	-.018	-.247 (.805)	-.023	-.309 (.758)
Internal w. Model	-.123	-1.936 (.050*)	-.104	-1.593 (.112)	-.098	-1.489 (.138)
Social support			-.085	-1.253 (.211)	-.086	-1.260 (.209)
Boundary A. *Social Support					-.049	-.782 (.435)
l.W.M.*Social support					-.041	-.665 (.506)
	R2=.115, ΔR2=.115 F=6.68, ΔF=.000		R2=.120, R2=.005 F=5.848, F=.211		R2=.096, ΔR2=.003 F=4.473, ΔF=.655	

\*p<.05, \*\*p<0.01, \*\*\*p<0.001

마지막으로 세계관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표 5〉). R<sup>2</sup>는 모형1에서 11.5%, 모형2에서는 14.3%, 모형3에서는 15.5%로 나타나 점점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3단계의 유의확률변화량 F가 .165로 나타나 경계모호성, 내부작동모델과 동반의존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계관성향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지 못했다.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 of World view orientation

independent variables	1		2		3	
	β	t(sig.)	β	t(sig.)	β	t(sig.)
Coefficient		10.904 (.000***)		9.168 (.000***)		10.970 (.000***)
Boundary A. (mother)	.199	3.138 (.002***)	.213	3.394 (.001**)	.243	3.280 (.001**)
Boundary A. (father)	.050	.819 (.414)	.049	.814 (.416)	.097	.907 (.365)
Boundary A. (Recent lost Rel.)	.149	2.377 (.018*)	.138	2.219 (.027*)	.197	2.121 (.035)
Boundary A. (Current Rel.)	.011	.167 (.867)	.006	.090 (.928)	.053	-.079 (.937)
Internal w. Model	-.123	-1.936 (.050*)	-.095	-1.506 (.133)	-.252	-1.525 (.129)
World view orientation			.171	2.898 (.004**)	.205	2.959 (.003**)
Boundary A. *W.V.O					-.322	-1.088 (.278)
l.W.M.*W.V.O					.279	1.345 (.180)
	R2=.115, ΔR2=.115 F=6.689, ΔF=.000		R2=.143, ΔR2=.028 F=7.134, ΔF=.004		R2=.155, ΔR2=.012 F=5.839, ΔF=.165	

\*p<.05, \*\*p<0.01, \*\*\*p<0.001

### 4. Mediating effect analysis of Codependency

경계모호성과 내부작동모델은 동반의존을 통하여 심리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경계모호성이 심리부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동반의존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회귀계수는 .296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2단계에서는 .445,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373, 매개변수가 .242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미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효과도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설명력을 보여주는 R<sup>2</sup>값은 1단계에서 9%, 2단계에서는 19.8%, 그리고 3단계에서는 25.2%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동반의존이 경계모호성, 내부작동모델과 심리부적응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부작동모델과 심리부적응 사이의 관계에서 동반의존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회귀계수는 -.175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468,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419, 매개변수가 .280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미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단계의 독립변수의 효과도 3단계의 독립변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설명력을 보여주는 R<sup>2</sup>값은 1단계에서 3%, 2단계에서는 21.9%, 그리고 3단계에서는 29.5%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동반의존이 경계모호성, 내부작동모델과 심리부적응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는 동반의존이 높은 스트레스로 인한 경계모호성과 내부작동모델로 인해 야기되는 심리부적응 사이에서 심리부적응을 완화하는 대처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6. The Mediating Effects of Codependency

	step	β	t(sig.)	R <sup>2</sup>
Boundary Ambiguity -> Codependency -> Psychological Maladjustment	1step	.296	5.023 (.000***)	.088
	2step	.445	8.040 (.000***)	.198
	3step (independent variable)	.373	6.652 (.000***)	.252
	3step (mediate variable)	.242	4.325 (.000***)	
Internal Working Model -> Codependency -> Psychological Maladjustment	1step	-.175	-2.872 (.004**)	.031
	2step	-.468	-8.567 (.000***)	.219
	3step (independent variable)	-.419	-7.935 (.000***)	.295
	3step (mediate variable)	.280	5.301 (.000***)	

\*p<.05. \*\*p<.01, \*\*\*p<.001

## V. Discussion and Conclusions

본 연구는 스트레스의 누적과 관련된 동반의존을 McCubbin & Patterson의 Double ABCX 스트레스 모델에 적용해 동반의존의 영향과 결과에 관한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3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으며, 먼저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요인(성별, 경제수준), 경계모호성, 내부작동모델이 동반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경계모호성, 내부작동모델과 동반의존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개인 및 가족자원인 자존감, 사회적지지 그리고 인식의 틀인 세계관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반의존이 경계모호성, 내부작동과 심리부적응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인구통계적 특성요인중 경제수준은 동반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성별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반의존은 경제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성별은 그 동안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과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일부 선행연구[20]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반의존에 관한 연구가 여성학 분야에서 성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였던 기존의 주장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경계모호성과 내부작동모델은 동반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스트레스로 여기고 경계모호성 및 부정적 내부작동모델을 통해 동반의존 현상을 유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 및 가족자원인 자존감, 사회적지지 그리고 인식의 틀인 세계관성향은 경계모호성, 내부작동모델과 동반의존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개인 및 가족자원 관련 변수들은 경계모호성과 내부작동모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및 가족의 내적·외적자원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 결과와 부적응 문제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거나 또는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계모호성과 내부작동모델과 부적응 결과인 심리부적응 사이에서 동반의존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심각한 부적응 문제를 좀 더 완화시키는 대처방식으로서 동반의존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21].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동반의존 현상이 스트레스더미로 인한 경계모호성과 내부작동모델의 부적응 결과이면서 동시에 이들 변수들과 심리부적응 사이를 매개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동반의존의 메커니즘의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향후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 검증해 봄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Burney, Robert. *Codependence: the Dance of Wounded Souls: An Audio spiritual Experience.*, Joy to you & me enterprises. 1995
- [2] Fuller JA, Warner RM., Family stressors as Predictors of codependency.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6(1): pp.5-22. 2000
- [3] Weber, J. G., *Individual and family stress and crises.* Thousand Oaks, CA: Sage. 2011
- [4] McCubbin, H. I., Olson, D. H., & Patterson, J. M., *Beyond Family Crisis: Family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Emergencies and Disasters*, 1(1): pp.73-93. 1983
- [5] Fischer, J., Spann, L. & Crawford, D., *Measuring codependency.*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8(1): pp.87-100. 1991
- [6] Whitfield, Charles L., *Co-dependence: healing the human condition: the new paradigm for helping professionals and people in recovery.* Hci. 1991
- [7] Boss, P. *Family stres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Springer. pp. 695-723. 1987
- [8] Boss, P., Greenberg, J. & Pearce-McCall, D., *The measurement of boundary ambiguity in families: An instrument package,*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St. Paul, MN.: University of Minnesota. 1990
- [9] Bowlby, J.,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Vol. 2,* New york: Basic Books. 1973
- [10] Kobasa, Suzanne C., Salvatore R. Maddi, and Stephen Kahn. *Hardiness and health: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1): pp.168-172. 1982
- [11] Collins, Nancy L., and Stephen J. Read.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pp.644. 1990
- [12] Fischer, Judith L., and Duane W. Crawford. *Codependency and parenting styl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3): pp.352-363. 1992
- [13] Jie-un Jeong, Min-tae Kim & Young-ae Lee. *The esteem of children.* expert channel. 2011
- [14] Uk-Hwan Kwak, Jin-wook Shoh, Kyu-Hee Hahn, Chul-Soo Park, Jan-Rak Kim, Boong-Nyun Kim, Bong-Jo Kim, Yeo-Hwa Kang, Yeong-Rae Ha, *The Relationships of Codependency with Family Stressors in Childhood and Psychopathology.* *J Korean Soc Biol Ther Psychiatry* 9(1): 2003
- [15] Beattie, Melody. *Codependent No More,* SanFrancisco: Harper and Row. 1987
- [16] Sun Young Jung, *The Study on Stress, Social Support, Codependency, and Health Status of the Families of Alcoholic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4): pp.400-416 2005
- [17] Ansbacher, H. L. & Ansbacher, R. R.,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New York: Basic Books. 1956
- [18] Lyness, K., *Delineating codependency,* Texas Tech University. 1991
- [19] Mendenhall, W., "Codependency definitions and dynamics",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6(1): pp.3-17. 1989
- [20] SunYoung Ju, *A Cross-Cultural Comparative Study of Codependency: Focusing on College Students among Republic of Korea, Kazakhstan and Kyrgyzstan.* University of Chosun. 2017
- [21] Horner, Mandie. *A theoretical model of family dysfunction with coping and codependency.* The 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2009

## Authors



Sunyoung Ju received the M.S. in social welfare from Gwangju University in 2011 and received Ph.D. in social welfare from Chosun University in 2017. Sunyoung Ju is working as a Lecturer of Chosun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practice and rehabilitation & welfare etc.



Seongkwan Yang received the Ph.D in Mass Communication department from Hanyang University in 2000. Seongkwan Yang is a professor of Dept of Childcare Welfare Dongkang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Social Research, Community

Social Welfare, and Program Development & Evaluation etc.



Hwieseo Park received Ph.D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93. Hwieseo Park is a professor of Dept. of Social Welfare & Public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policy etc.